

2017년 2학기 스위스 FHNW 공과대학 교환학생 후기

건설환경공학부 박성호

0. 기간

2017.9.5 한국 출국 ~ 2018.2.21 한국 귀국 (학기는 2018.2.2 끝났습니다.)

1. 교환학생 준비과정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했던 서류 과정은 3가지였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교환학생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 위해 신청서 작성과 영어 성적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공과대학 국제교류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FHNW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되면 FHNW 담당 교수님께 메일을 통하여 수강 계획과 필요한 서류를 보낸 후, FHNW 공과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정식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수강 신청과 기숙사 신청은 따로 담당 교수님께서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비자신청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힘들겠지만, 제가 스위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스위스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이 꽤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스위스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 여러모로 찾아보다 보면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이 나열 되어있는 문서가 있는데 약 11종류의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어 면접도 있어 저는 예상질문을 만들어 준비해갔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고 난 후, 발급받기까지 약 8~10주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스위스 도착 후 초기 준비과정

FHNW는 우리 학교처럼 버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한 명당 한 명의 버디가 배정되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버디와 메일을 통하여 스위스 도착일시와 만날 장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하니 버디가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와줬고 기숙사까지 친절하게 데려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버디의 도움을 많이 받아 준비하였습니다.

초기 준비 과정도 3가지 정도로 나열해보려 합니다.

1 - 생활용품

초기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들은 취리히 근처에 있는 IKEA에 가서 샀습니다. 그 근처에는 대형 쇼핑몰도 있어 식자재도 살 수 있었고 옷 브랜드들도 많은 세일을 하고 있어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곳이 제가 사는 지역과는 멀어 나중에는 가까운 곳에서 식자재는 구입하였습니다.

2 - 거주등록

한국에서 발급 받아온 스위스 비자는 9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거주등록을 했습니다. 거주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았던 비자와 스위스 내 주소지, 보험, FHNW 입학허가서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험은 스위스에서 swisscare를 들지, 한국에서 보험을 들고 갈지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 우선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따라 swisscare가 신청이 안되는 지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신청을 하고 갔는데 제가 생활했던 기숙사가 있던 Olten이라는 도시는 swisscare 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갔기 때문에 거주 등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고 스위스 내에서 6개월동안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Trimbach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거주등록을 하였고 몇 주가 지난 후 Solothurn에서 정식 거주등록을 위한 인터뷰 진행 일정을 정하라고 우편이 한 통 와서 메일을 통하여 일정을 잡아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후 또 몇 주가 지나고 정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3 - 핸드폰 유심칩과 계좌

처음 일주일 동안은 유심칩이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Prepaid 유심칩보다는 매달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어 기다렸으나 유심칩없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결국 Lycamobile prepaid 유심칩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학교나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와이파이 이용이 안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이 유심칩을 사용하다가 10월부터는 영국 3sim에서 유심칩을 사서 로밍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랬습니다.)

계좌의 경우, 여러 은행을 돌아다녀본 결과 UBS가 학생에게 가장 혜택이 좋아 거주등록을 하고서는 바로 신청하였고 은행계좌와 카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거주등록 시 필요했던 서류들이 거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보증금이 200프랑이 필요하고 6개월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 FHNW 교육

FHNW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rts Northwestern Switzerland) 는 스위스 내에서 단과 대학 별로 4개의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 수업을 들었던 곳은 FHNW 공대로 Brugg라는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FHNW 중에서 공대가 건물도 가장 많고 큰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대로 오는 교환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 공대 교환학생 과정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는 듯 하였고 저희가 갔을 때에는 4명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과정은 Computer Science PEP (Professional Experience Project) 였습니다. 원래 서울대에서 저의 전공은 건설환경공학이지만 평소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교환학생을 갈 때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더 많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학생 9명과 기업 직원 1명으로 구성되었고 기업에서 의뢰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전시회에서 전시회를 찾은 사람이 QR코드를 이용하여 전시 물품의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과 일을 진행해본 적도 없고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전무한 저는 처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육제도가 달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즉,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시절, 그 친구들은 회사에서 인턴십과 비슷한 과정을 보내며 2일은 관련 공부를 하고 3일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는 달리 너무 일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팀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라운드 룰을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고 저의 역할은 Software Architecture 였습니다. 계속된 회의를 통해 Project를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각자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씩 완성을 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할 수 있었고 배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워크라는 기간이 있어 일주일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듯이 8~9시간 이상 프로젝트에만 전념해보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미래에 직장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project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배웠습니다. Project management, Intercultural Awareness, Swiss Culture and Society, German 수업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4. FHNW 생활

학교는 Brugg에 있었지만 주로 생활하고 거주하는 기숙사는 Olten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사람이 많은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라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을 맘껏 누릴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FHNW 교환학생 모두를 위해 준비된 공간으로 병원 스태프 하우스의 4개 층을 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1인실을 사용하였고 14명의 학생들이 한 층을 공유하며 화장실과 부엌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층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해먹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

니다. 스위스 물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 듯, 매우 비쌉니다. 특히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들은 너무 비싸서 음식 같은 경우도 사서 먹으려면 부담이 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Migros나 Denner라는 마트를 주로 이용하여 식자재를 샀고 종종 Coop에서도 세일 제품을 사서 기숙사에서 요리하여 먹었습니다. 제가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 음식 때문에 6개월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기숙사 주변 30분 거리를 자주 뛰었고 기숙사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환경은 정말 런닝을 하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치안은 정말 안전하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입니다.

5. 스위스 교통

스위스 교통은 사실 많이 비싸고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다른 유럽에 비해 치안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내에서 이동에 있어 대부분은 기차를 이용하고 버스도 많은 노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람, 자전거, 자동차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또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와 기숙사가 20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 보니 학교에서 학교와 기숙사를 한 달 동안 계속하여 이동할 수 있는 패스의 비용인 187 스위스 프랑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위스 모든 지역의 대중 교통을 모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GA 패스(산악 열차는 제외)가 245스위스 프랑임을 알게 되어 자비용을 조금 지불하여 매달 GA패스를 구매하여 스위스 지역 전체를 무료로 이동할 수 있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스위스 내에서 많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6. 그 외 활동

FHNW 학교에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비롯해 많은 활동을 무료 또는 소량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기도 했고 시간이 부족할 듯 하여 따로 프로그램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축구를 매우 좋아하여 교환학생 친구들과 축구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축구를 하였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며 많은 친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FHNW 학교에서는 교환학생 welcome week 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었습니다. 스위스 대표 지역을 여행 시켜주고 소개해주며 스위스에 대해 차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왔고 이는 6개월동안 스위스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럽 교환학생을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여행을 한 것 입니다. (물론 더 많이 하

고싶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스위스 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도시의 설계와 건축물들을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교환학생으로 사귀어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갔고 그 친구들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부모님, 형제, 다른 친구들과도 소통하며 각 도시의 지역적인 면모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7. 교환학생을 마치면서

처음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교환학생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복잡한 준비과정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간의 교환학생을 마친 이 시점에서 교환학생을 신청하여 6개월동안 스위스에서 생활하였던 것은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순간이었고 엄청난 경험이었음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평소 바쁜 생활 속에 모르고 지나쳤던 저에 대해 탐구하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으며 제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담당자 분들께 감사하고 장학금을 통해 지원해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문회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